



<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②1>
우리나라의 고용, 외국과 비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 경제활동참가율이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즉 생산가능 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한 사람의 비율을 말하며, 노동참가율이라고도 함.
-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OECD 통계(*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연령 상한이 없음)를 기준으로 각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해보면, 2014년 우리나라는 67.8%로 일본(75.5%), 미국(72.7%), 독일(77.7%), 영국(77.6%) 등 주요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연령별로는 특히 15~2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28.6%)이 주요 선진국(미국 55.0%, 영국 61.2%, 독일 50.0%, 일본 43.0%)은 물론 OECD 평균(47.2%) 보다는 훨씬 낮았음. 성별로는 남성 78.6%, 여성 57.0%로 주요 선진국(미국 78.5% : 67.1%, 영국 83.1% : 72.1%, 독일 82.5% : 72.9%, 일본 84.9% : 66.0%)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고용률 비교】

- 고용률이란 경제활동인구와 비(非)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노동법상 최저 근로연령인 만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군인·재소자 등은 제외)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인구비율이라고도 함.

- 경제활동인구에는 취업자와 현재 취업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실업자가 포함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일할 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고용여건이 못돼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학생, 전업주부,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됨.
- 고용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과 비교할 때,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포함함으로써 구직을 단념했거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의한 과소 추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문제가 해결됨. 최근에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세 가지 고용지표 중에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고용률이 사회지표로 더욱 활용되는 추세임.
- 15~64세를 기준으로 한 OECD통계를 토대로 주요국의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5.3%로 OECD 회원국 평균(65.8%)에 근접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68.1%), 영국(72.6%), 독일(73.8%), 일본(72.7%) 등 70%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임.

【실업률 비교】

- 실업률이란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는 실업률의 계산에서 제외됨. 원칙적으로 학생과 주부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입을 위해 취업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군인과 수감자 등은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함.
-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4년 현재 3.7%로 OECD 모든 국가 가운데서 노르웨이(3.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 이는 OECD 평균(7.5%)은 물론, 미국(6.3%), 영국(6.4%), 독일(5.1%), 일본(3.8%)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임.
-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이 선진국과 다르기 때문임. 여기에는 대략 다음과 같

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① 농어업부문 취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②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③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해서 적극적으로 취업하려는 경향이 있음.
- ④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⑤ 대학진학률이 높아 소위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취업대기자가 많음.

【참고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 2013.12

한국노동연구원, 2015 KLI해외노동통계